최고의 깨달음으로 가는 한 길



新 불교사자성어

㉖ 향상일로(向上一路)

'향상일로(向上一路)' 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언어적인 풀이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향상(向上)' 이라는 말은 생활수준이나 기술, 또는 실력 등이 더 나아졌다는 말로서, 전보다 진보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일로(一路)' 는 '단 하나의 길' 을 뜻하는데, 영어의 'Only One Way' 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향상일로' 라는 말은 선어(禪語)이다. 선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유명한 〈벽암록〉, 〈선문염송〉 등에 나온다. 처음 사용한 선승은 당나라 때의 반산보적(720~814) 선사이다.

그 뜻은 '최고의 깨달음(向上)' , '완벽한 깨달음' 이다. 또는 '최고의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一路)' 을 뜻하기도 한다. 언어도단, 즉 의식적인 사고나 언어가 닿지 못하는 최상의 극처(極處)를 가리키는 것이다. 언어적 표현이 불가능한 세계나 경지를 뜻한다.

동의어로서 '향상일구(向上一句)' 라는 말이 있다. '최고의 완벽한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는 한마디 말' 혹은 '키워드가 되는 핵심적인 말' 을 뜻한다.

'향상일로' 는 필자가 입산 시절에 오래도록 모셨던 탄허 스님께서도 서묵(書墨)에서 즐겨 쓰셨던 문구이다. 필자는 10대부터 20대까지 약 7~8년 동안 탄허 스님을 시봉했는데, 제자들이나 신도들이 좌우명이 될 만한 글씨를 청하면 이 글귀(향상일로)를 많이 써주었다. 물론 그 뜻은 최고의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라는 뜻일 것이다. 아마 이것이 탄허 스님의 젊은 날의 이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탄허 스님은 타고난 천재이면서도 노력파였다. 어느 하나의 텍스트를 강의할 때는 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하셨지만, '불교학' 이나 '동양학'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할 때는 6개월의 강의기간 동안 책을 보거나 필기 노트를 본 적이 없다. 대부분 그 내용을 암기하고 계셨는데, 큰 흑판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빽빽하게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강의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이라는 말이 있다.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는 뜻이다. 나날이 향상하고 발전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탐구정신과 노력을 강조한 교훈적인 명구로 유가의 경서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말인데, 필자가 매우 좋아해서 메모지에 적어 책상머리나 컴퓨터 상단에 붙여놓았다. 이 명구를 볼 때마다 노력, 또 노력하려고 한다. 나 자신을 보다 인격적인 사람,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사람은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향상되어야 한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안일에 빠진 사람, 정신이 죽어 먼지가 된 사람이다. 그것을 서구적인 표현으로는 '성장이 멈춘 사람' 이라고 한다. '성장이 멈춘 사람' 은 자신을 갈고 닦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떠올려보면 사업이나 공부, 학문과 수행 등이 있다. 사업가는 사업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학문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깨달음에서 향상,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격' 이다. 인격은 학문, 수행 등이 하나가 되어 언행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격은 '그 사람의 모든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이나 학문, 수행 등에서는 '이것으로 끝이다.' 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완성' 이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일 뿐, 이 세상에 완성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무지에 의한 어리석음과 오만일 뿐이다.

천재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노력파는 성공하지만 천재파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천재도 노력(향상일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금강경〉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유정법 명 아뇩다라 삼약삼보리' 이다. '고정된 진리는 없다. 그것이 곧 최상의 깨달음' 이라는 뜻이다. 안일무사에 빠지지 말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나날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향상일로가 주는 가르침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조주가 드러낸 '공고한마'

〈功高汗馬〉



격절록 강설

㉖ 설봉고간 평창 2

[評唱 2]

如今人只隨語生解 殊不知 趙州與雪峯相見. 州云 "不可從鼻孔裏入" 雪峯云 "趙州古佛 從此不答話" 已是與他相見. 且道這裏意是如何. 須是打破面前漆桶 始可入作. 後人不善來風 走向趙州語下作活計 到這裏若是通方漢 必知此二尊宿落處.

요즘 사람들은 말을 따라 지해(知解)를 내기 때문에 조주와 설봉이 서로 만난 것(相見 相見處)을 전혀 모르고 있다. 조주는 말하기를 "콧구멍에 들어가면 안 된다" 고 했고, 설봉은 말하기를 "조주는 고불이다. 이제부터는 대답하지 않겠다" 고 하였으니, 이미(이것으로) 그들이 서로 만난 것이다. 자, 말해보라! 여기서 그 뜻이 무엇인가?

모름지기 바로 면전에서 칠통을 타파해야 비로소 들어갈(入作) 수 있다. 그런데 뒷사람들은 바람이 잘 불지도 않는데 조주의 말 아래로 달려가 활발하게 계교를 부리고 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사통팔달한 작가(通方漢, 통방작가)라야 이 두 존숙의 낙처(落處)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雪峯云 "趙州古佛 從此不答話" 此一句語 如金如玉 難酬其價. 雪峯雖答者僧話 終不去語句裏作繫驢橛. 後人多少錯會 妄去中間穿鑿 殊不知本宗猷. 此事若只在言句上 便不深屈古人 所謂玉女已歸霄漢去 獃郎猶在火爐邊.

설봉이 말하기를 "조주는 고불이다. 이제부터는 답하지 않겠다" 고 했는데, 이 일구어(一句語)가 마치 금과 같고 옥과 같아서(如金如玉)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설봉이 비록 이 스님의 말에 답은 했지만, 결코 어구 속에서 나귀 매는 말뚝(繫驢橛)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뒷사람들이 많이들 잘못 알고 망령되이 그 가운데서 어구를 천착하고 있으니, 그 근본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이 만약 단지 언구에만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고인을 너무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소위 "옥녀는 이미 하늘로 돌아갔는데, 어리석은 사내는 아직도 화로 곁에 있네" 라고 한 것이다.

雪竇道 "眾中總道 雪峯答他話 便成就下平高 難為作者" 又是錯會 喫雪竇毒藥了也. 此意與法眼話作兩橛一般 只為他一手擡一手搦. 只如 趙州勘婆子 且道 是勘破不勘破. 且道 雪峯是答他話 不答他話. 真如喆 拈趙州勘婆子話道 "天下衲僧只知問路 老婆要且不知脚下泥深. 若非趙州老人 爭顯功高汗馬"

설두가 말했다.

"대중들이 모두 말하기를 설봉은 '이 스님의 물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조주가 긍정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한다. 이와 같은 말은 설봉을 몹시 억울하게 하는 것이다. 설두는 그렇지 않나니, 못을 끊고 쇠를 자르는 본분종사는 낮은 것을 취해서 높은 곳을 고르게 하기에 작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앞의 염고를 참조할 것)."

그런데 또 이것을 잘못 알면 설두의 독약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뜻은 법안화작양궐화(法眼話作兩橛話, 법안이 두 개의 말뚝이 되었다고 말한 공안, 1칙 참조할 것)와 같은 것으로, 단지 한 손으로는 들어 올리고 한 손으로는 내리누른 것이다.

그렇다면, 조주가 노파를 감파했다(趙州勘婆子)고 하는데, 자, 말해보라! 감파한 것인가, 감파하지 못한 것인가? 자, 말해보라! 설봉이 그의 말에 답을 한 것인가, 답을 하지 못한 것인가? 진여 철(真如喆, 대위모철)이 조주의 감파자화(趙州勘婆子話)를 염해서 말했다.

"천하의 납승들은 단지 길을 물을 줄만 알았고 노파는 다리 밑에 진흙이 깊은 줄은 알지 못했다. 만약 조주 노인네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공고한마(功高汗馬, 땀 흘린 말의 공이 높음=큰 공을 세움)를 드러낼 수 있었겠는가?"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㉖ 이해의 길 6

연기적 사유, 인류 미래 대안

건물이 높을수록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100층이나 되는 거대한 불교 건물도 마찬가지다. 이 붓다빌딩을 든든히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깨침' 과 '자비' 가 바로 그것이다. 깨침은 중생 싯다르타를 붓다로 이끈 종교적 체험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비가 가능하다는 것이 불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논리다.

그렇다면 싯다르타는 무엇을 깨쳐서 붓다로 질적 전환을 이루었을까? 바로 연기(緣起)의 진리다. 연기란 빠알리어로 '말미암아(緣)' 라는 의미의 '빠띳짜(paticca)' 와 '일어난다(起)' 는 의미를 가진 '사뭅빠다(samuppada)' 가 결합된 합성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붓다는 이를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생기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此起故彼起).' 라고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짧은 이 두 문장은 '연기의 공식' 이라 일컬어지는데, 여기에서 붓다가 통찰한 세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앞에 나온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다.' 는 구절은 세계를 공간적으로 관찰한 부분이다. 오래 전 벗의 딸기농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벌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알고 보니 수정을 위해 벌을 풀어놓았던 것이다. 그때 비로소 벌이 없으면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벌과 딸기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기적 관계라는 것, 이것이 곧 붓다가 통찰한 존재의 참 모습이었다.

붓다는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볏단에 비유한 적이 있다. 볏단은 서로 마주 세워놓아야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볏단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볏단도 쓰러지기 때문이다. 조금 과장한다면 이것과 저것(彼此)은 서로의 존재 이유이자 근거가 된다는 뜻이다. 이는 곧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 몸(同體)이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자비(慈悲)가 나오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인 '이것이 생기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는 구절은 연기의 시간적 관찰이다. 모든 것은 공간적으로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서로 더불어 존재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많은 불자들이 애독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은 종이로 만들어졌는데, 한 장의 종이는 태양과 먹구름 등 수많은 인연들이 시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적절한 양의 햇빛과 비 등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고, 그 원목으로 종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장의 신문 속에는 기사나 광고뿐만 아니라 태양과 비, 먹구름 등 수많은 인연이 함께 담겨있다. 이뿐만 아니라 나무를 베는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어깨에 맺힌 땀방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붓다가 성찰한 연기의 의미였다.

이처럼 연기의 진리는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 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과 저것, 나와 너, 인간과 자연, 남과 북, 동과 서는 한 몸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비로소 상대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慈) 슬플 때 함께 슬퍼할(悲)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동체자비다. 이와는 달리 모든 것을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느끼면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간과 자연을 둘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환경을 함부로 대하고 그럼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그 피해를 '또 다른 자연', 즉 인간이 입고 있는 것이다. 핵전쟁의 공포나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도 나와 다른 사람을 둘로 보는 이원적 세계관에서 나온 필연적 산물이다. 붓다가 깨친 연기적 사유는 오늘의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응답하라1988' 에 나온 대사다. 사랑은 왜 넉넉함이 아니라 절실함일까? 바로 그 대상이 나와 한 몸이기 때문이다. 연기, 동체자비는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경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한국불교대덕큰스님들께 올리는 글

소승은 경기도 연천 오봉사 주지 군맹서진이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그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가 한국에 오시게 되어 1988년부터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깊은 불연으로 사리탑 건립불사를 발원하고 2019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신사리친견법회를 봉행하고 바로 봉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신사리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인사하고 들어가셔야 하신다며 전국 사찰로 파발을 보내면 참다운 당신의 제자들이 인사하러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날 제자들을 다 만나면 알려줄 터이니 그때 봉안하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신비로운 현상으로 보아 소승의 망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어 일단 지면상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제자이신 한국불교대덕큰스님들께 진신사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적멸보궁 오봉사 | 주 지 군맹서진 합장

진신사리친견 안내

개별친견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7월은 7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
- 서울 지하철 7호선 내방역 8번 출구에서 오전 8시 버스출발 (왕복 2만원)
- 친견 예약은 02-532-0012(강남불교대학) 또는 홈페이지(http://gangnambu.org)에서 3일전까지 예약 바라며 예약하지 않거나 10시 이후에 오시면 친견하실 수 없습니다.

단체친견
- 30명 이상의 단체친견일 경우,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Tel. 02-532-0012 강남불교대학

오봉사 진신사리의 유래는 유튜브채널 강남불교대학에서 [언제 또 이런 인연을 만나 이런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는 동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